

‘식목일 앞두고 불타는 산’ 전남서 올해 벌써 축구장 107개 탔다

올 1월~3월 23일 산불 37건, 76.52ha 소실 잠정 집계

2020년 이후 3년간 불에 탄 산림 피해 면적 ‘눈덩이’

식목일을 앞두고 전남 함평·순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이틀째 총력 진화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전남도 내에서만 벌써 축구장 107개 면적의 임야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련기사 8면)**

기후 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도내 산불 피해 규모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37건, 피해 임야 면적은 76.52ha(76만5200㎡)에 이른다. 축구장 단일 면적(7140㎡) 기준 107개 꼴이다.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건수·피해 면적은 ▲2020년 36건·8.19ha ▲2021년 32건·18.04ha ▲2022년 55건·62.56ha였다. 소중한 산림 자

원 피해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산불로 인한 임야 피해 면적은 축구장 231개에 해당한다.

특히 1년째 가뭄이 이어진 올해에는 1분기 도 채 지나지 않아 벌써 지난해 피해 규모를 훌쩍 뛰어 넘었다.

식목일을 이틀 앞둔 지난 3일 함평·순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올해 피해 규모는 예년 대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전날 낮 12시 19분께 함평군 대동면 양봉장 주변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산불 영향 구역만 382ha(추산)에 이른다.

주변 마을 주민 43명이 면사무소 등지로 긴급 대피했다. 또 복분자 가공식품 공장 4개 등

이 모두 탔고, 돼지 축사·비닐하우스 등이 타거나 그을렸다.

같은 날 오후 1시 2분께 순천시 송광면 한 야산에서 난 불로 임야 127ha가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근 평촌·산정 마을 81가구, 주민 89명도 긴급 대피했다.

산림 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 이틀째 총력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경사 지형과 바람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60%대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함평·순천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큰 불길을 잡는 대로 잔불 정리, 뒷불 감시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급증에 대해서는 “지난해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돌고, 기후 변화로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실 면적 역시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산불이 쓰레기 소각, 밭두렁 태



4일 오전 산불 대응 3단계로 상향된 전남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산불현장에서 전남119 소방헬기가 진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우기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失火)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산림보호법 위반에 대해 엄정 대

응한다. 올해에만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등 위반 사례 46건을 적발해 과태료 1174만 원을 부과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함평 편입해 광주 발전?...독단적이고 파렴치한 발언”

전남도의원들, 광주시장 발언 규탄 “민간공항 이전 파기하더니 이기주의”

강기정 광주시장의 ‘전남 함평군 광주시 편입’ 발언에 대해 전남도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다.

전남도의원들은 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치 함평군이 광주시로 통합이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광주시장의 발언에 대해 전남도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모 언론사 포럼에서 “함평군을 광주로 통합시켜달라는 민간단체의 요구에 광주시는 평가 없다. 광주시 땅에 바다가 생긴다. 돌머리해수욕장이 광주시 땅이 된다. 함평의 그 많은 땅에 그린벨트를 풀고 좋은 시설을 만들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도의원들은 “광주시는 함평군 주민과 시도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전남도와 협의 또한 없이 독단적으로 함평군의 광주시



전남도의원들이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정 광주시장의 ‘함평군 광주시 편입’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편입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며 “편입을 통해 바다를 품은 광주시 발전을 꾀하는 안하무인식의 발언은 함평군민과 전남도민을 기만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는 2021년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하루아침에 파기하더니 이제는 지역의 기주에 젖어 함평을 광주로 편입하겠다는

망상을 실현 가능할 것처럼 발언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도의원들은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은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 편익을 훼손하고, 마땅히 광주에 있어야 할 사회현오시설이 함평으로 집중되고 함평군민뿐만 아닌 전남도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동취재본부

나랏빚 1000조 넘었다...전년비 97조 ↑

정부, ‘2022 국가결산보고서’ 의결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돈 2060만원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1년 동안 97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증가세를 막을 순 없었다. 그 사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도 187만원 늘어내며 2000만원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15면)**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 97조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43만9038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떠안은 국가채무는 2060만원이다. 전년도(1873만원)와 비교해 187만원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팽창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1397만원 규모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 보상과 경기 회복을 위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제 발행을 늘리면서 3년 만에 663만원 증가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노력으로 국제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제 상환하며 올해 분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 8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p) 상승했지만 이 역시 분예산 대비로는 0.1%p 감소해 5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 활성화와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할 경우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재환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